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물리치료학과

김 지원 · 박상현 · 주성희 · 김용권 · 안덕현

The research of the recognition rate about physical therapy among the high school teachers working in Busan and KyoungNam

Kim, Ji-won · Park, Sang-hyeon · Joo, Sung-Hui · Kim, Yong-kwon · Ahn Duck-hyun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s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 ABSTRACT -

This study randomly chose 10 humanity high schools, which are located in Busan and KyoungNam province. We then examined the recognition rate of physical therapy among 378 teachers who were and still are working in the schools.

1. The recognition grade of physical therapeutics between men and wom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sults of 80.7% of men and 69.7% of women($p < 0.05$). In the case of experiencing physical therapy, 83.6% of people said they knew the physical therapeutics and in the case of the opposite side, the result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a result of 67.8%($p < 0.05$).
2. We ranked the people on how much they knew about the physical therapeutics among men and women. With men, the actual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eutic came before what they heard from other people. In the case of women, what they heard from other people came first and the actual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eutic came after. According to the public information from Inje University, the recognition grade is recorded in the 3rd grade department as 21.5% while in the case of experiencing treatment from a physical therapist, the result was 39.1%. In the other department (the 1st grade department), what men and women heard from mass media was recorded at 17.5% and what they heard from other people, it was recorded at 33.8%($p < 0.05$).
3. The research about the recognition of academic ability of being a physical therapist was that 55.6% of teachers thought that 3-year-college was the best, which made the results different from the recognition grade

of the experience of education($p < 0.05$).

4. In the recognition grade of physical therapeutics,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from 50.2% of men and 45.2% of women were expecting about 1million won to 1.99million won. In case of 25.2%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 less than 15years at work, they expected about 2million to 2.99million won. The figures were higher than 10.1%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s over 15years. About the recognition grade of physical therapists social level in the future is 48.8% of people who had experienced of physical therapy and 63.8% of people who never had experienced of it said it would be better in the future.

From these results, the recognition about physical therapeutics and the view of its social status are optimistic and they know well about the level of academic ability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 other hand, most teachers dont know exactly about physical therapists work. So we have to inform them aggressively for enhancing the recognition of physical therapy because high school students are well affected by their teachers when they face their future or major in university.

Key Word : high school teachers, physical therapy, recognition, social level

I. 서 론

인간 생활의 질적 발전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사고 및 환경오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의료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선천성 혹은 후천성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권혁철 등, 1993; 김연희 등, 1991; 최영태 등, 1990; Keith, 1991). 통계청(2003)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8%, 1990년 5.1%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오는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대되어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노인복지 의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변화와 접근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김용권과 조영하, 2000), 물리치료사의 역할

이 보다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김동환, 1992).

물리치료사에 대한 세계물리치료사 연맹(WCPT, 1982)의 정의를 보면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효과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에게 오랜 기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의 치료서비스 제공능력이 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겠다(권혁철, 1996). 따라서 이러한 업무의 특성에 미루어 볼 때, 대학과정에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예리한 판단력과 높은 지성, 올바른 도덕관념을 지닌 물리치료사인 동시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직 물리치료사로 교육시켜야 한다(장수경, 1991). 이를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 지망생들이 특별한 사명감 내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물리치료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인식이 사전에 필요하

다고 하겠다(홍완성, 1991).

물리치료학과를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홍완성(1986)은 신입생 면접시 학과선택 동기 및 장래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명료한 진로의식을 갖고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학과의 성격도 잘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일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장수경(1985)은 물리치료학과를 지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도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각 학교의 진로상담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생들의 학과선택과 입학 후 전공에 대한 적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부산·경남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일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10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 남자 223명, 여자 155명 총 3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물리치료 인식도에 관한 문항은 홍완성(1991)의 물리치료학과 인식도에 관한 문항과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문항을 인용 수정하여, 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8문항, 물리치료 인식도에 관한 10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설문 및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분석과 χ^2 -검정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결과에 따른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서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총 378명 중 남자는 40대가 45.7%, 여자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담당학년은 남자는 3학년 담당이 40.4%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1학년 담당에서 29.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임(부장)급 이상의 교사보다 일반교사가 80.4%로 많았다. 교육경력에서 남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73.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10년 미만의 경력자가 53.5%로 가장 많았다. 물리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남자가 59.2%, 여자는 44.5%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남	여	계
연령(세)			
<30	11(4.9)	52(33.6)	63(16.7)
30~39	74(33.2)	48(31.0)	122(32.3)
40~49	102(45.7)	50(32.3)	152(40.2)
50≤	36(16.1)	5(3.2)	41(10.9)
담당학년			
1학년	35(15.7)	45(29.0)	80(21.2)
2학년	51(22.9)	39(25.2)	90(23.8)
3학년	90(40.4)	31(20.0)	121(32.0)
기타	47(21.1)	40(25.8)	87(23.0)
교육경력(년)			

5	19(8.5)	54(34.8)	73(19.3)
5~9	41(18.4)	29(18.7)	70(18.5)
10~14	49(22.0)	27(17.4)	76(20.1)
15~19	57(25.6)	22(14.2)	79(20.9)
20≤	57(25.6)	23(14.8)	80(21.2)
물리치료 경험 유무			
유	132(59.2)	69(44.5)	201(53.2)
무	91(40.8)	86(55.5)	177(46.8)
계	223(100)	155(100)	378(100)

2. 조사대상자의 물리치료 인식도에 관한 특성

1)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인식도

표 2에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378명 중 76.2%가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23.8%는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80.7%가, 여자는 69.7%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83.6%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67.8%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알고 있었다		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성별*			
남	180(80.7)	43(19.3)	223(100)
여	108(69.7)	47(30.3)	155(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168(83.6)	33(16.4)	201(100)
무	120(67.8)	57(32.2)	177(100)
계	288(76.2)	90(23.8)	378(100)

* $p<0.05$

2) 물리치료학과 정보에 대한 취득경로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로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남자는 치료를 받아본 경험, 주위 사람들 순으로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반면, 여자는 주위사람들, 치료를 받아본 경험 순으로 알게 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담당학년에 따라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로는 대학의 홍보에 의해 알게 된 경우가 3학년 담당에서 21.5%, 치료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경우는 기타 담당에서 39.1%, 매스컴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는 1학년 담당에서 각각 17.5%, 3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3. 물리치료학과 정보의 취득경로 단위 : 명(%)

	대학의 홍보	치료경험	매스컴	주위사람들	기타	무응답	계
성별*							
남	37(16.6)	83(37.2)	32(14.4)	52(23.3)	9(4.0)	10(4.5)	223(100)
여	11(7.1)	39(25.2)	19(12.3)	53(34.2)	18(11.6)	15(9.7)	155(100)
담당학년*							
1학년	7(8.8)	15(18.8)	14(17.5)	27(33.8)	6(7.5)	11(13.8)	80(100)
2학년	9(10.0)	33(36.7)	11(12.2)	25(27.8)	8(8.9)	4(4.4)	90(100)
3학년	26(21.5)	40(33.1)	16(13.2)	25(20.7)	8(6.6)	6(5.0)	121(100)
기타	6(6.9)	34(39.1)	10(11.5)	28(32.2)	5(5.8)	4(4.6)	87(100)
계	48(12.7)	122(32.3)	51(13.5)	105(27.8)	27(7.1)	25(6.6)	378(100)

* $p<0.05$

3) 물리치료사의 학력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

물리치료사의 학력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표4에서 보면 3년제 졸업이 55.6%, 4년제 졸업이 37.0%, 기타 6.4%, 고졸이 1.1%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성은 없었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학력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3년제 졸업이 15~19년 경력자에서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제 졸업이 5~9년 경력자에서 45.7%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물리치료사의 학력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명(%)

연령(세)	고졸				기타 ^{b)}	계
	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30	0(0)	34(54.0)	24(38.1)	5(7.9)	63(100)	
30~39	0(0)	62(50.8)	52(42.6)	8(6.6)	122(100)	
40~49	3(2.0)	91(59.9)	50(32.9)	8(5.3)	152(100)	
50≤	1(2.4)	23(56.1)	14(34.2)	3(7.3)	41(100)	
교육경력(년)*						
<5	0(0)	37(50.7)	27(37.0)	9(12.3)	73(100)	
5~9	0(0)	33(47.1)	32(45.7)	5(7.2)	70(100)	
10~14	1(1.3)	39(51.3)	33(43.4)	3(4.0)	76(100)	
15~19	0(0)	51(64.6)	24(30.4)	4(5.1)	79(100)	
20≤	3(3.8)	50(62.5)	24(30.0)	3(3.8)	80(100)	
계	4(1.1)	210(55.6)	140(37.0)	24(6.4)	378(100)	

* p<0.05

^{b)}기타 : 보조학원, 대학원 졸업 등이 포함

4) 물리치료학과의 취업률에 대한 인식

물리치료학과의 취업률에 대한 인식을 표 5에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61.6%가 80%이상 취업된다고 인식하였고, 물리치료학과 취업률이 50%미만 일 것으로 인식한 교사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물리치료학과의 취업률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명(%)

연령(세)	50%~79%			80%≤	모르겠다	계
	<50%					
<30	4(6.4)	19(30.2)	38(60.3)	2(3.2)	63(100)	
30~39	8(6.6)	32(26.2)	76(62.3)	6(4.9)	122(100)	
40~49	4(2.6)	37(24.3)	97(63.8)	14(9.2)	152(100)	
50≤	5(12.2)	9(22.0)	22(53.7)	5(12.2)	41(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12(6.0)	42(20.9)	129(64.2)	18(9.0)	201(100)	
무	9(5.1)	55(31.1)	104(58.8)	9(5.1)	177(100)	
계	21(5.6)	97(25.7)	233(61.6)	27(7.1)	378(100)	

5)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

조사대상자 378명 중 일부 고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직접 평가하고

치료하는 치료사라고 생각한 교사가 37.6%로 가장 많았고, 의사의 보조라고 인식한 교사가 34.7%, 안마사, 지압사, 접골사 등으로 인식한 교사가 21.4%순으로 나타났다(표6).

표 6.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연령(세)	직접 평가하고 안마사, 지압사, 접골사 등				모르겠다	계
	의사의 보조	치료를 하는 치료사				
<30	20(31.8)	19(30.2)	17(27.0)	7(11.1)	63(100)	
30~39	42(34.4)	46(37.7)	29(23.8)	5(4.1)	122(100)	
40~49	57(37.5)	57(37.5)	30(19.7)	8(5.3)	152(100)	
50≤	12(29.3)	20(48.8)	5(12.2)	4(9.8)	41(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78(38.8)	74(36.8)	37(18.4)	12(6.0)	201(100)	
무	53(29.9)	68(38.4)	44(24.9)	12(6.8)	177(100)	
계	131(34.7)	142(37.6)	81(21.4)	24(6.4)	378(100)	

6) 물리치료학과 진로 지도시 조언의 기준

조사대상자들의 물리치료학과 진로 지도시 조언의 기준은 학생들의 적성 44.5%, 취업 전망 21.2%, 학과의 장래성 19.8%, 학생의 성적 10.9%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요청이나 경제적 여건을 참고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는 각각 0.3%로 나타났다(표7).

표 7. 물리치료학과 진로 지도 시 조언의 기준 단위 : 명(%)

연령(세)	학부모 사회인류 취업 경제적 기타								계
	성적	적성	장래성	학부모 요청	사회인류 공헌도	취업 전망	경제적 여건		
<30	4(6.4)	34(54.0)	10(15.9)	0(0)	1(1.6)	13(20.6)	0(0)	1(1.6)	63(100)
30~39	13(10.7)	57(46.7)	24(19.7)	1(0.8)	1(0.8)	23(18.9)	1(0.8)	2(1.6)	122(100)
40~49	19(12.5)	61(40.1)	32(21.1)	0(0)	6(4.0)	34(22.4)	0(0)	0(0)	152(100)
50≤	5(12.2)	16(39.0)	9(22.0)	0(0)	0(0)	10(24.4)	0(0)	1(2.4)	41(100)
성별									
남	26(11.6)	90(40.4)	47(21.1)	1(0.5)	3(1.4)	53(23.8)	1(0.5)	2(0.9)	223(100)
여	15(9.7)	78(50.3)	28(18.1)	0(0)	5(3.2)	27(17.4)	0(0)	2(1.3)	155(100)
계	41(10.9)	168(44.5)	75(19.8)	1(0.3)	8(2.1)	80(21.2)	1(0.3)	4(1.1)	378(100)

7) 물리치료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도

물리치료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도를 표 8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378명 중 물리치료사의 보수를 100만 원대로 생각한 교사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3.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도는 100만 원대에서 남·여 모두 각각 50.2%,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교육경력은 1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200만 원대라는 응답이 평균 25.2%로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들의 10.1%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표 8. 물리치료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100만원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	모르겠다	계
성별*						
남	10(4.5)	112(50.2)	44(19.7)	11(4.9)	46(20.6)	223(100)
여	15(9.7)	70(45.2)	27(17.4)	1(0.7)	42(27.1)	155(100)
교육경력(년)*						
<5	5(6.8)	35(47.9)	16(21.9)	1(1.4)	16(21.9)	73(100)
5~9	6(8.6)	33(47.1)	21(30.0)	1(1.4)	9(12.9)	70(100)
10~14	3(3.9)	37(48.7)	18(23.7)	0(0)	18(23.7)	76(100)
15~19	5(6.3)	36(45.6)	8(10.1)	5(6.3)	25(31.6)	79(100)
20≤	6(7.5)	41(51.3)	8(10.0)	5(6.3)	20(25.0)	80(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16(8.0)	101(50.3)	36(17.9)	8(4.0)	40(19.9)	201(100)
무	9(5.1)	81(45.8)	35(19.8)	4(2.3)	48(27.1)	177(100)
계	25(6.6)	182(48.2)	71(18.8)	12(3.2)	88(23.3)	378(100)

* $p<0.05$

3)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를 표 9에서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49.7%가 좋다, 43.9%가 보통, 4.0%가 매우 좋다, 1.9%가 나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나쁘다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계
연령(세)							
<30	2(3.2)	30(47.6)	30(47.6)	1(1.6)	0(0)	0(0)	63(100)
30~39	5(4.1)	67(54.9)	49(40.2)	1(0.8)	0(0)	0(0)	122(100)
40~49	6(4.0)	72(47.4)	71(46.7)	2(1.3)	0(0)	1(0.7)	152(100)
50≤	2(4.9)	19(46.3)	16(39.0)	3(7.3)	0(0)	1(2.4)	41(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6(3.0)	98(48.8)	91(45.3)	5(2.5)	0(0)	1(0.5)	201(100)
무	9(5.1)	90(50.9)	75(42.4)	2(1.1)	0(0)	1(0.6)	177(100)
계	15(4.0)	188(49.7)	166(43.9)	7(1.9)	0(0)	2(0.5)	378(100)

9) 물리치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도

표 10에서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92.0%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고, 0.5%는 낮아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인식도를 보면 남자는 53.8%, 여자는 58.7%가 각각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회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인식한 교사는 남자 0%, 여자는 1.3%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의 유무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의 향후 전망에 관한 인식도는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 중 48.8%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 반면,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63.8%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10.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의 향후 전망 단위 : 명(%)

	많이 좋아질 것	조금 좋아질 것	지금 수준 유지	낮아질 것	잘 모르겠다	계
연령(세)						
<30	30(47.6)	28(44.4)	4(6.4)	1(1.6)	0(0)	63(100)
30~39	66(54.1)	48(39.3)	6(4.9)	0(0)	2(1.6)	122(100)
40~49	92(60.5)	46(30.3)	7(4.6)	1(0.7)	6(4.0)	152(100)
50≤	23(56.1)	15(36.6)	2(4.9)	0(0)	1(2.4)	41(100)
성별*						
남	120(53.8)	80(35.9)	14(6.3)	0(0)	9(4.0)	223(100)
여	91(58.7)	57(36.8)	5(3.2)	2(1.3)	0(0)	155(100)

물리치료 경험유무*

유	98(48.8)	85(42.3)	9(4.5)	2(1.0)	7(3.5)	201(100)
무	113(63.8)	52(29.4)	10(5.7)	0(0)	2(1.1)	177(100)
계	211(55.8)	137(36.2)	19(5.0)	2(0.5)	9(2.4)	378(100)

* p<0.05

IV. 고찰

진로교육은 자아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선택한 진로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자아실현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이 학력중심의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의 직업관을 합리적인 진로정보에 의한 진로선택 보다는 부모의 강요와 무분별한 가치기준으로 계열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대학 진학 후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민태호, 2002). 이에 본 연구자는 진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부산·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53.2%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완성(1991)은 경기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21.5%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인식도가 증가하였거나 시대적, 지역적 특성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장수경(1991)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입학 전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에 대해 59.8%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모르고 있었다의 40.2%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

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76.2%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83.6%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에도 67.8%가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안미진 등(2001)이 연구한 물리치료학과 지원자들의 물리치료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로가 주위사람, 매스컴, 기타, 학교홍보, 물리치료 경험유무 순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치료경험, 주위 사람들, 매스컴, 대학의 홍보, 기타의 순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하여 연구대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학의 홍보에 의해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우는 12.7%로 낮게 나타나 각 대학에서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학과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치료사의 학력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홍완성(1991)의 연구에서 3년제 졸업 76.2%, 4년제 졸업 12.9%, 보조학원 5.6%, 고졸 5.2% 순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3년제 졸업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이 37.0%, 고졸이나 보조학원은 6.4%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또한 물리치료를 의료 전문직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일부 있었으나 물리치료사의 학력 수준이 4년제 졸업이라는 인식은 전 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는 의사의 보조, 안마사, 지압사, 접골사 등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권혜정(1987)의 연구에서 45.5%, 홍완성의 연구에서는 40.1%(1986), 34.2%(199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접 평가하고 치료하는 치료사로 생각하는 교사는 홍완성(1991)의 연구에서는 55.9%이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7.6%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경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가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사회통계조사(2001)에서 대학진학의 필요 사유를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36.4%,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29.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생에게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해 줄 때 조언의 기준으로 적성을 참조하는 교사가 44.5%로 가장 많았고 취업전망이 21.2%, 장래성이 19.8%, 성적은 10.9%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적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취업전망과 학과의 장래성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기 수월한 학과를 택하게 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장수경(1985)은 16.8%, 홍완성(1991)은 10.8%로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9%로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홍완성(1991)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15.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73.3%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53.7%,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43.9%로 나타나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진 반면,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도는 과거보다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V. 결 론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0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378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응답자 378명 중 남자교사 223명, 여자교사 155명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41~49세의 교사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담당 학년별로는 3학년 담당 교사가 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은 20년 이상이 21.2%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아본 교사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남, 여 모두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는 경우가 남자80.7%, 여자 69.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알고 있다가 83.6%로 나타났고,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도 67.8%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3.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남자는 치료를 받아본 경험, 주위 사람들 순으로 물리치료학과를 알게 된 반면, 여자는 주위사람들, 치료를 받아본 경험 순에 의해 알게 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대학의 홍보에 의해 알게 된 경우는 3학년 담당에서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경우는 기타에서 39.1%, 매스컴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알게 된 경우는 1학년 담당에서 각각 17.5%, 3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4. 물리치료사의 학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문대 졸업(3년제)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경력과 물리치료사의 학력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5. 물리치료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정도는 남자 50.2%, 여자 45.2%가 100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그리고 1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200만 원대라는 응답이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48.8%, 물리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 63.8%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고등학교 교사들은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인식도와 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향후 각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희, 김대숙, 김정순 등. 병원중심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의사,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간호학회지. 8(2): 148-157, 2001.

권혁철 등. 한국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신대학 보건과학 연구소보. 1993.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1996.

권혜정. 대학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8(1), 1987.

김동환. 캐나다(퀘벡) 물리치료 협회에서 평가한 대한물리치료협회 정회원의 성적평가.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3(1): 1-4, 1992.

김기순, 김연희, 박창일 등. 농촌지역 지체장애자의 실태 및 주민의 태도에 관한 조사. 대한재활의학회지. 14(2): 369-376, 1991.

김연희, 문혜원, 최영태 등.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의 실태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관한 조사. 대한재활의학회지. 14(2): 346-354, 1990.

김용권, 조영하. 노인들의 고관절골절 위험요인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9(1): 26-36, 2002.

김은주, 남재만, 배성수 등.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241-251, 1998.

김인자, 이은옥, 최희정. 성인이 지각한 운동장애 요인에 대한 성별, 나이별, 지역별 비교. 15(2): 193-203, 2003.

대통령령. 제16426호. 보건복지부. 의요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8.

민태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2.

박원. 고등학생들의 진학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부산광역시. 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대학진학의 필요사유. 204, 2001.

안미진, 엄미나, 이지운 등. 물리치료과 지원자들의 물리치료 인식도에 관한 연구. 마산대학 논문집. 4: 129-155, 2001.

유부현. 자기이해를 통한 인문계 여고생의 계열 선택 지도 사례. 한국카운슬러협회. 1984.

장수경.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전공학습 만족 여부 및 취업희망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6(1): 29-39, 1985.

장수경.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전공학습 만족여부 및 취업희망에 관한 연구(II).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2(2): 103-116, 1991.

- 정낙수.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물리치료사 인력수
급에 대하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2(2): 137-
146, 1991.
- 홍완성 외. 일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입학동기와 물
리치료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전문대
학 논문집. 1986.
- 홍완성.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
식도에 관한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39-54, 1991.
- 통계청. 2003 고령자 통계. 2003.
- Bar-Yam, M. The interaction of student
characteristics with instructional strategies. A
study of student performance and attitude in a
high school innovativ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9.
- Gee DA, Hickok R.J. Developing unit costs for
physical therapy modalities. Physical Therapy 42:
173-178, 1962.
- Hoyt, K. B. Career Education. Salt Lake City ,
Utah : Olympus, 1975.
- Keith RA. The comprehensive treatment team in
rehabilitation. Archives Physical Med Rehabil.
70(2): 81-85, 1991.
- Price J.W. Setting rates for physical therapy
service. Physical Therapy 49: 265-268. 1969.
- Vollmer H.M. Kinney JA. Age,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Personnel. 132: 38-43, 1995.
- W CPT. Principles and Guidance for Initiating the
Training of Physical Therapist. 12-28, 1981.